



바이오마커 이용 유방염 진단법 등 소개

+ 검역원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 실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에서는 유방염 예방이 농가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 축산물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5일 전국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집유업체 등에서 일하는 유방염 검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젖소 유방염 방제사업 교육' <사진>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방염방제사업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유방염 감염우의 조기치료와 원유 위생관리를 통해 낙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려는 목적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다.

박희명 건국대 교수는 '국내외 젖소 유방염 진단의 최신동향'이라는 특강에서 유방염의 발생양상, 경제적 피해, 바이오마커(단백질체)를 이용한 진단법 등을 소개했다.

남향미 검역원 세균과 박사는 주요 유방염 원인균 분리동정과 함께 항생제 내성검사 관련 표준 검사법 등을 강연했다.

김영길(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12월 23일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교육 실시

+ 검역원, 12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담당자 대상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5일 전국 12개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담당자를 대상으로 '축산 항생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 아시아·태평양 항생제 내성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김소현 서울



삼성병원 박사는 최근 사람에서의 주요 항생제 내성균 현황과 동물에서의 체계적 항생제 내성 관리 감시체계 구축 중요성 등을 발표했다.

임숙경 검역원 세균과 박사는 항생제 내성균 검사방법의 표준화 교육과 2010년 사업수행 내용 및 일정을 소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이해를 도모했다. 검역원은 항생제 내성균 검사방법 숙련도 향상과 표준화를 통해 국가차원에서 내성균 감시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갑수 검역원 동물위생연구부 부장은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모니터링 결과를 항생제 안전관리 정책수립 등에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영길(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12월 23일



PRRS는 세계적 화두...국제학회 특별 심포지엄 열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국제 동물질병 전문가 학회(CRWAD)에서는 PRRS 심포지엄이 특별 세션으로 마련됐다. 심포지엄에서는 PRRS 바이러스와 숙주의 상호작용, 바이러스 구조 및 기능, PRRS 분자역학과 변이, 그리고 PRRS 백신과 면역 등 4개 주제를 놓고 17건의 구두발표와 92건의 포스터가 발표됐다.

특히 PRRS 바이러스가 숙주의 면역을 회피하는 원인을 찾기 위한 연구결과와 효과적인 백신개발에 대한 연구개발 결과가 제시됐다. 한편 현방훈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바이러스과 연구관은 국제 동물질병 전문가 학회에서 '항체분자를 이용한 광견병 치료물질'이라는 주제로 학술발표해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국제 동물질병 전문가 학회는 1920년 미국 시카고에서 창립돼 올해 90회째를 맞이하는 매우 전통 있는 학회이다. 검역원은 다양한 국제 학회에 적극적으로 참여, 유익한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교류를 통해 가축질병 예방기술 선진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12월 26일

 **싸코백신 2개사 합류 “차별화로 승부”**

+ **녹십자 ‘싸코실드’ 고려비엔피 ‘돈호방 싸코노’ 품목허가 획득...선발 추격전 본격화**



후발업체가 합류, 싸코바이러스 백신 시장은 한층 더 달아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4일 열린 녹십자수의약품의 ‘싸코실드’ 설명회 모습.

국내 ‘싸코시장’ 8개업체 백신 라인업 완료

이제 다 나왔다. 녹십자수의약품과 고려비엔피가 각각 지난달과 이달 싸코바이러스 백신 ‘싸코실드’와 ‘돈호방 싸코노’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이로써 당초 예상됐던 8개 회사, 즉 베링거인겔하임, 메리알, 인터베트-쉐링푸라우, 코미팜, 중앙백신연구소, 대성미생물연구소, 녹십자수의약품, 고려비엔피 등 싸코바이러스 백신 라인업

이 모두 꾸러졌다. 업체들은 저마다 경쟁력 우위를 자신하며, 싸코바이러스 백신 시장 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비장한 각오를 보이고 있다. 특히 후발업체의 경우, “기존 제품과는 확연히 다른 차별화된 강점을 갖추고 있다. 선발업체를 따라잡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녹십자수의약품은 지난 24일 수원컨트리클럽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싸코실드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송대섭 녹십자수의약품 연구원은 싸코실드의 특징점으로 △국내 최초 PCV-2a형과 PCV-2b형 첨가 △높은 증식성(106.0)-글루코사민 불필요 △세포성 면역유도 효과 △항체양전 확인 △합성폴리머를 면역조성제로 사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출시는 늦었지만, 연구개발은 2005년부터 시작했다.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려다보니 시간이오래걸렸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 김포소재 E농장에서 싸코실드 야외실험을 한 결과, 폐사율과 출하율 등에서 수입제품을 월등히 앞질렀다”고 강조했다.

고려비엔피는 ‘돈호방 싸코노’의 특징으로 고역가 항원, 3주령 1회 접종, ORF2 함유, 경제적 가격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회사측은 “항원량이 충분해야 제대로 된 백신 효과를 볼 수 있다. ‘돈호방 싸코노’는 ‘KUF’ 프로세스를 통한 고역가 항원을 함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09년 12월 26일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 시행**

+ 검역원, 관련 규정 개정 고시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기준이 시행에 들어갔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30일 ‘동물용 의약품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검역원 고시)’ 등을 개정,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준을 마련해 고시했다.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고시 개정에서는 생약제제를 동물·식물의 약용으로 하는 부분, 세포내용물(미생물을 포함한다), 분비물, 추출물 또는 광물을 제제화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만, 특정성분을 정제해 제제화한 것은 생약제제로 간주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고시에서는 또 생약제제 동물용의약품 허가 기준을 신약 2종류, 자료제출 동물용의약품 12종류 등으로 세분화했다. 아울러 첨부자료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검역원은 생약제제 허가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2008년 용역연구사업을 비롯해 지난해 전문가 회의, TF팀 구성, 고객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검역원은 농가들이 보다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 하는데 생약제제 허가기준이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동물약품 산업계에는 생약제제 개발, 수출촉진 등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6일

 **다양한 유전자형 BVD바이러스 예방 가능해진다**

+ 검역원, 6가지 유전형 국내 유행 확인

축우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소바이러스설사병(BVD)을 예방하기 위해 유전자 맞춤형 예방약이 올해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원장 이주호)은 최근 2년간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BVD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6가지 유전형이 야외에서 유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역원은 야외의 다양한 유전형의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 여러 유전자가형이 보강된 유전

자맞춤형 예방약 개발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소바이러스설사병은 소바이러스설사병(Bovine Viral Diarrhea: BVD)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한 소의 전염병으로 고열, 점액성 또는 혈액성의 심한 설사, 백혈구 감소증, 식욕절폐, 유량감소, 기침, 호흡촉박, 탈수로 인한 폐사, 임신우에서의 유산, 사산 및 기형우 등 번식장애를 유발한다. 이에 따른 피해는 2007년 3건에서 2008년 23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BVD 바이러스에 의한 유산이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소의 뇌조직에서 BVD 바이러스를 검출한 결과 16.2%가 감염됐다. 이중 3.5%가 BVD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는 지속감염 송아지 발생이 주요한 전파원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BVD 예방약은 대부분 소전염성비기관염바이러스(IBRV)와 소파라인플루엔자 3형 바이러스(PI-3)와 함께 한가지 유전자형의 BVD 바이러스를 혼합·불활화해 만든 3종 혼합 사독백신으로 다양한 유전자형 BVD 바이러스 감염시 예방효과가 낮을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유전형의 BVD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러 유전자형이 보강된 유전자맞춤형 예방약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검역원 바이러스과 현방훈 박사는 “이번에 연구결과로 확보된 다양한 유전자형의 BVD 바이러스를 사용한 유전자 맞춤형 예방약의 조기 산업화 및 농가보급을 통해 소의 설사병 및 유사산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완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월 8일



자식처럼 키운 소 살처분 ‘침통’

✦ 구제역 비상...방역의식 조이자 / 현장스케치

발생농장 500m이내 젖소 등 309두 매몰처리

“이번을 끝으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를.” 발생현장은 침통했다.

그리고 다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바람이 간절했다. 구제역 발생농장의 젖소 198두를 비롯해 농장에서 500m 안에 있는 젖소 66두, 흑염소 45두 등 총 309두가 살처분 매몰처리됐



①)방역담당자만이 소독을 거친 후 농장에 들어갈 수 있다. ②) 포천시청에 마련된 비상대책 종합상황실. 방역 공무원들이 현장을 점검하느라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③)매물작업에 쓰인 포크레인이 덩그러니 농장 어귀에 서있다.

다. 자식처럼 키운 소를 땅에 묻는 심정이야 말할 수 없이 침통했겠지만, 농가들은 별 반발없이 순순히 살처분에 응했다고 현장 방역담당자들은 전했다. 그만큼 구제역이 무섭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농장주들이 잘 알고 있다는 설명.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10Km 안에는 비상 방역 초소 15개가 꾸려졌다. 아예 농장에 들어가는 도로를 막아 도로위에는 방역차만이 가끔씩 보일 뿐이다. 방역초소에서는 경찰이 거주자, 공장관계자 등 제한된 사람만 들여보내고 나머지 사람과 차량은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제했다. 사료차량, 우유차량 등은 구역내에서 별도의 차량을 운영하며 혹시나 바이러스가 새지 않도록 조치했다. 도로 한편에는 연무형 소독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동은 되지 않고 있었다. 영하 20

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이다보니 소독제가 얼어붙어 자칫 안전사고가 우려돼 차량소독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방역담당자는 전했다. 온통 도로 위를 하얗게 물들인 생석회 가루만이 소독역할을 하는 모습이다.

발생농장 바로 앞 초소에는 사람용 소독장치가 있다. 농장주는 일절 농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이 소독장치를 거친 후 방역담당자가 전달해 준다고 했다. 매물작업에 쓰였던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우울한 현장을 대변하고 있다.

포천시청에는 비상대책 종합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었다.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포천시청 공무원 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곳에서 한 공무원은 “현장여건상 소독보다는 통제가 더 효율적이다. 주민들과 농장주들이 잘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방역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신문/2010년 1월 9일



주요담보내용(담보별지급사유)

+ 이모저모/ 구제역 왜 겨울에 발생했나

“구제역은 계절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겨울이 더 위험하다.”

겨울에 발생한 이번 구제역을 두고, 전문가들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계절 또는 기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오히려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더 길어지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의 위험도는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인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해외전염병과장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했던 것은 과거 국내 발생이 봄철에 집중됐던 까닭이 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중국, 베트남, 태국 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이집트, 앙골라, 나이지리아 등에 아프리카에서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있다”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기온 또는 지역과 관계없이 활동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겨울철이 구제역 위험에 더 놓이게 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조 과장은 “다른 바이러스와 마찬가지로 구제역 바이러스 역시 열에는 취약하지만, 온도가 낮을수록 생존기간이 길어진다. 특히 소독 등 방역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활개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겨울이 구제역 취약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겨울에 바이러스가 생존해있다고 하더라도, 봄철에 다시 창궐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구제역 바이러스는 얼어서 생존해 있다고 하더라도 날씨가 풀리면 급속히 소멸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길기자(young@chuksannews.co.kr)

축산뉴스/2010년 1월 11일



수의사들 구제역 조기근절 위해 앞장선다

✦ 전국 임상수의사에 환축 조기 발견 및 신속 보고 당부

대한수의사회를 주축으로 한 전국의 임상수의사들이 최근 발생한 구제역 조기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한수의사회(회장 정영채)는 지난 7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구제역 발생사실을 발표하자 이 사실을 16개 시도수의사회 및 7개 산하단체와 전국 임상수의사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고 조기에 환축을 발견 및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전국 수의사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부의 구제역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과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님을 국민들에게 알려 막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서한을 통해 “이번 포천 젓소농장의 구제역 발생에 따라 가축방역당국은 신속하게 방역대를 설치하고 반경 500M 이내의 우제류가축 309두(소 264두, 염소 45두)에 대한 살처분을 8일 새벽까지 완료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향 후 상황 전개가 미지수인 만큼 일선 수의사들은 구제역 환축 조기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상 축 발견 시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닌 가축전염병임을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주지시켜 불필요한 동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구제역 발생으로 말미암아 국내 축산물 소비위축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요청했다.

또한 대한수의사회는 각 시도 지부를 통해 농가들에 대한 방역교육에도 적극 앞장서기로 했다.

한편 정영채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구제역을 최초로 발견하고 신고한 포천동물병원 원장 길광철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수의사로서의 소임을 다해준데 대해 치하와 감사의 말을 전했으며 추후 표창하기로 했다.

박정원기자(wan@chukkyung.co.kr)
축산경제신문/2010년 1월 11일